

투어 번호
LK3T3XGRTW

세일론 사랑(28일)

22일 · 21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28일 투어는 스리랑카를 한 바퀴 도는 긴 경로를 따릅니다. 남서쪽 해안의 히깟두와와 갈레에서 시작하여 남해안을 따라 미리싸와 얄라를 거쳐 언덕 지역의 엘라, 누와라 엘리야, 캔디로 올라가고, 담불라 주변의 문화 삼각지대로 내려간 후 북쪽의 트린코말리, 자프나, 아누라다푸라로 향하며, 서해안의 콜롬보와 네곰보에서 마무리합니다. 해변 시간, 야생동물 사파리, 언덕 지역의 경치, 그리고 섬의 주요 역사 및 종교 유적지를 하나의 연속적인 일정으로 포함합니다.

여행객들은 갈레와 같은 식민지 시대 도시, 수영과 휴식을 위한 해안선, 표범과 코끼리를 볼 수 있는 얄라와 미네리야의 국립공원, 차 농지를 통한 기차 여행, 그리고 폴론나루와와 아누라다푸라의 고대 도시, 시기리야 바위 요새와 담불라 석굴 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북부는 자프나와 그 힌두교 사원, 섬 성지로 대표되며, 이는 투어에 더 넓은 지리적, 문화적 범위를 제공합니다.

이 투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용 차량 운전 가이드가 진행하며, 그는 도착 시 여행객을 맞이하여 전체 경로를 함께 동반합니다. 매일은 그날 지역의 명시된 명소, 방문처 또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히카두와 → 갈레 (1~3일차)

공항에 도착한 후 갈레 남부 지방에 위치한 해변 휴양 도시 히카두와로 이동하여 체크인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갈레의 식민지 시대 요새와 주변 명소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히카두와

산호초로 둘러싸인 해변으로 유명한 해변 휴양 도시로, 이곳에서 체크인한 후 해변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Astronomyinertia · CC BY-SA 3.0



갈레 구 식민 도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본거지로 삼았던 요새 도시를 탐험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인 갈레 요새와 그 안의 박물관들, 등대, 그리고 네덜란드식 이름이 붙은 돌이 깔린 거리를 둘러봅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한두누고다 차 공장

버진 화이트 티 공장으로도 알려진 이곳에서 생산되는 차의 역사와 손을 대지 않고 채엽하고 가공하는 버진 화이트 티의 제조 과정을 배웁니다. 이어서 차와 케이크를 곁들인 시식 시간을 갖고 찻잎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루마사라

갈레 동쪽 3킬로미터에 위치한 언덕으로, 정상에는 하얀 불교 다고바가 있으며 현지 전설에 따르면 라마야나 이야기의 하누만과 드로나기리 산과 연관이 있고, 시타가 머물렀던 곳으로도 전해집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스틸트 피셔맨(죽마 어부)

코갈라 앞바다에서 죽마 위에 올라앉아 낚시하는 어부들을 관찰하고, 이 전통 기술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들으며 석양을 배경으로 실루엣으로 비치는 어부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4 미리사 (4~5일차)

남부 해안에서 느긋한 분위기로 유명한 유명 관광지 미리사의 해변에서 이틀간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미리사 해변

웰리가마 만 동쪽 끝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해변으로, 야자수와 바위로 둘러싸인 웅덩이들이 늘어서 있으며, 곡선을 이루는 모래사장이 마치 외딴 섬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서 이틀간 여유를 즐깁니다.

Ji-Elle · CC BY-SA 3.0

Day 6 얄라 (6~7일차)

스리랑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얄라로 이동하며, 가는 길에 거북이 부화장과 독특한 황무지 해안 지형을 둘러본 후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중 한 곳에서 사파리를 즐깁니다.

거북이 부화장

레카와 거북이 부화장에서 스리랑카 해안에 서식하는 다섯 종의 멸종 위기 바다거북과 그 보호 활동에 대해 배우며, 낮 시간 거북이 관찰에 참여하거나 몇 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우상고다

나무가 거의 없는 독특한 해안 고원 지대로, 독성 중금속을 함유한 뱀무늬 암석 위에서는 특정 작은 식물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라마야나 전설에 따르면 하누만의 불타는 꼬리, 그리고 라바나 왕의 전설적인 비행 전차와 연관된 곳입니다.

A.Savin · FAL



얄라 국립공원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인 이곳에서 하루 종일 사파리를 즐깁니다.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이 공원은 스리랑카 표범 서식지로 유명하며, 야생 물소, 늘보곰, 코끼리, 그리고 200종 이상의 조류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8 엘라 → 누와라엘리야 (8~10일차)

내륙으로 이동하여 고대 사원 유적과 하이킹으로 유명한 고지대 마을 엘라를 방문한 후, 중부 고원 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치 좋은 기차 여행을 통해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옛 고지대 휴양 도시 누와라엘리야로 향합니다.



부두루왈라가 사원

10세기에 조성된 대승불교 계열의 고대 불교 사원 유적지로, 일곱 개의 불상이 있습니다. 거대한 불상은 한때 화려하게 채색되었던 회반죽 옷자락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며, 중앙 측면의 불상은 보살 아발로키테스바라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Vishvax (talk) (Uploads) · CC BY-SA 3.0



엘라

이 지역의 차밭과 암석 지형을 탐험하고, 리틀 아담스 피크에서 경치를 감상하며, 나인 아치스 브리지를 건너고, 특이한 루프형 철로가 있는 데모다라 기차역에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Dan arndt · CC BY-SA 4.0

엘라 록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한 곳까지 올라가는 3시간짜리 하이킹으로, 나무누쿨라 산맥과 리틀 아담스 피크의 경치를 지나며, 정상에서는 반다라왈라 산맥, 푸나갈라 언덕, 나랑갈라, 엘라 협곡과 바둘라행 철로까지 보입니다.



경치 좋은 기차 여행

하푸탈레에서 누와라엘리야까지 중부 고원 지대를 가로지르는 기차 여행으로, 산과 폭포, 차밭과 안개 낀 작은 마을들을 지나갑니다.

Chamal N · CC BY-SA 3.0



누와라엘리야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에게 최고의 휴양지였던 고지대 마을로, 산책하며 둘러볼 수 있는 오두막집과 별장, 대저택들,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 빅토리아 여왕 공원과 그레고리 호수의 호숫가가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11 캔디 (11~12일차)

캔디로 향하는 길에 차 공장과 람보다 폭포에 들른 후, 고지대의 수도에서 전통 문화 공연 관람, 불치사 방문, 그리고 왕립 식물원 관람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차 공장 방문

실제로 운영 중인 차 공장과 농장을 방문하여 실론 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살펴봅니다. 1824년 중국에서 들여온 차나무로 시작된 산업의 역사와, 1852년부터 룰레콘데라 농장에서 상업적인 차 재배를 시작한 제임스 테일러의 이야기도 함께 알아봅니다.



람보다 폭포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를 방문하고, 차의 품종과 가공 과정을 설명하는 맥우즈 차 농장 가이드 투어에 참여합니다. 이어서 학갈라 식물원을 걸으며 둘러보고 그레고리 호숫가를 따라 산책합니다.

A.Savin · FAL



캔디안 전통 문화 공연

스리랑카 전통 예술 형식을 선보이는 1시간 분량의 공연으로, 불 춤꾼, 검 춤꾼, 그리고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캔디안 댄서들이 등장합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불치사

부처님의 성스러운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16세기에 세워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빨강, 크림색, 검정으로 채색된 복도와 홀, 조각이 새겨진 기둥들과 황금 불상들이 있습니다.

A.Savin · FAL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으로, 난초, 향신료 식물,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 이상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캐넌볼 트리와 현수교, 그리고 미로처럼 조성된 생울타리도 볼 수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3 담불라 (13~15일차)

셈부왓타 호수와 향신료 정원을 거쳐 담불라로 이동한 후, 문화 삼각지대에 위치한 이곳을 기점으로 시기리야, 마을 투어, 민네리야 국립공원, 폴론나루와, 담불라 석굴 사원을 둘러봅니다.



셈부왓타 호수

엘카두와 근처에 위치한 자연 샘물로 형성된 호수로, 현지에서는 깊이가 30~40피트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접한 자연 샘물로 채워진 수영장도 있습니다.

Sivanandhan Dishanthan · CC BY-SA 4.0



향신료 정원

고수, 고추, 계피, 카다멈, 육두구 등의 향신료와 약초,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해 안내받는 가이드 투어로, 로티나 커리 파우더를 처음부터 만드는 전통 요리 시범도 함께 진행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시기리야 암벽 요새

카샤파 왕을 위해 지어진 5세기 암벽 요새를 오르며, 사자 발 모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 프레스코 벽화를 감상하고, 계단식 정원과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까지 올라가며, 터널을 지나 옛 왕궁 터로 향합니다.

Wrobell · CC BY-SA 3.0



시기리야 마을 투어

소가 끄는 수레 타기, 고요한 호수에서의 카타마란 사파리, 논밭 사이 산책, 전통 요리 시범, 그리고 연잎에 담긴 가정식 점심 식사 등으로 구성된 마을 체험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민네리야 국립공원

5월부터 10월까지의 건기 동안 15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모이는 것으로 유명한 이 공원에서 3시간짜리 사파리를 즐기며,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

10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번성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주요 고대 수도의 유적으로, 갈 비하라야, 바타다게, 연못 목욕터, 랑카틸라카 사원과 파라크라마바후 왕과 연관된 석상 등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담불라 석굴 사원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황금 사원의 석굴들로, 부처님의 생애를 묘사한 벽화와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걸쳐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이 있으며, 그중에는 신성한 왕의 석굴과 위대한 왕의 석굴이 포함됩니다. 단지 바깥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16 트린코말리 (16~18일차)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트린코말리에서는 스리랑카 최고의 해변들과 함께 역사적인 요새, 사원, 그리고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네스와람 사원

인도의 시인 성자들이 찬양했던 고대 사원으로, 사원의 역사를 담은 벽화와 기원전 15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석굴 사당이 있으며, 사원의 본당 건축물은 서기 400년경부터 발전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Shamli071 · CC BY-SA 3.0



프레드릭 요새

1624년 포르투갈인들이 처음 세웠다가 이후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해체되고 재건된 요새로, 이 요새가 대체했던 코네스와람 사원에서 가져온 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AntanO · CC BY-SA 4.0



닐라벨리 해변

스리랑카 최고의 해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황금빛 모래와 야자수, 맑은 푸른 바다가 특징입니다. 10세기 타밀어 비문에는 이 해변이 코네스와람 사원에 하사된 토지의 일부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Anton 17 · CC BY-SA 4.0



트린코말리 고래 관찰 사파리

대왕고래, 향유고래, 긴수염고래를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하는 5시간짜리 투어로, 생태 전문가가 동행하여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고래 관찰법과 식별 팁을 안내합니다.

Ji-Elle · CC BY-SA 3.0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산호초로 둘러싸인 크고 작은 두 개의 피전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공원으로, 번식 중인 바위비둘기들과 다양한 종류의 산호,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입니다.

AntanO · CC BY-SA 4.0



티리야야 와타다게

한때 타밀 불교가 행해졌던 마을로, 부처님이 두 상인에게 머리카락 사리를 전했다고 전해지는 지점을 표시하는 기리하두 세야 스투파가 있으며, 바니야르 족장의 요새 유적도 남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19 자프나 (19~20일차)

북부의 타밀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자프나 반도에서 도시와 그 사원들, 그리고 인근 섬의 성지들을 탐험합니다.



자프나

북부 반도의 중심 도시로, 4천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날루르, 나이나티부, 마빗타푸람 등의 힌두 사원들과 함께 네덜란드 요새, 전쟁 기념비, 사라스와티 마할 도서관, 나가디파 비하라, 그리고 자프나의 마지막 왕이었던 상킬리 1세의 궁전이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가디파 섬

자프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신할라인들에게는 나가디파로, 고대에는 마니팔라밤으로 알려져 있으며, 뱀을 숭배했던 나가 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나티부 나가푸샤니 암만 사원과 나가디파 푸라나 비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kinamaste · CC BY-SA 3.0



나이나티부 나가푸샤니 암만 사원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 2천 년 이상의 역사가 기록된 사원으로, 인드라 신에 대한 숭배 전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고푸람과 여러 개의 홀을 갖춘 드라비다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에 단 64곳뿐인 샤크티 피담 중 하나입니다.

Wikinamaste · CC BY-SA 3.0

Day 21 아누라다푸라

천 년 넘게 고대 스리랑카의 수도였으며 테라바다 불교의 중심지였던 아누라다푸라에서 하루 동안 유적이 된 사원과 성지들을 둘러봅니다.



아누라다푸라 유적 도시

서기 10세기까지 사용되었던 고대 수도의 유적으로, 광활한 지역에 걸쳐 파고다와 수도원 건물, 연못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던 제타바나라마야 스투파, 스리 마하 보디 나무, 그리고 아바야기리 수도원 유적이 포함됩니다.

Thisaru Tharuka · CC BY-SA 4.0

Day 22 콜롬보 → 네곰보 (22~24일차)

여행의 마지막은 수도 콜롬보의 명소들과 밤문화를 이틀간 탐험한 후, 출국 전 공항 근처의 해변 마을 네곰보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콜롬보 시티 투어

옛 등대, 옛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야 사원과 국립 박물관을 포함한 수도의 명소들을 둘러보는 투어로, 쇼핑몰과 부티크 상점, 디자이너 매장들도 함께 둘러봅니다.

Gihanud2001 · CC0



콜롬보 나이트라이프

해변 파티와 칵테일, 음악이 어우러지는 콜롬보의 밤문화와 카지노,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부티크 레스토랑들을 즐깁니다.

Gihanud2001 · CC0



네곰보

공항 근처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해변 마을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어업과 모래 해변, 수상 스포츠, 그리고 약 50년 된 난파선 주변에서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는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cost of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Except for Credit Card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